

마을기업 한자리에, 지역 상생 가치 재확인

‘2025 희망한마당’ 성과공유회 성료... 우수사례 발표·기부 성과 공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들이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희망한마당’ 성과공유회가 최근, 익산 공예디자인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마을기업 대표와 관계자 시·군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희망한마당은 마을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부에서는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기부 실적 공개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교류와 화합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행사는 김성숙 전북마을기업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의 인사, 한병도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이어지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마을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희망한마당’ 성과공유회가 최근, 익산 공예디자인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별자치도지사의 축사,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의 인사, 한병도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이어지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마을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북도지사 표창에는 참살이협동조합, 김계순누리이야기협동조합 선거웹핑드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고, 도의장 표창은 농업회사법인 비즈양조(주), 지평선농부들영농조합법인, 최고운 주무관이 수상했다.

참살이협동조합과 지평선농부들영농조합법인은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과 주민 참여 기반의 성과 창출 노하우를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마을기업이 1년간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총 6,9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의미를 더했다.

김성숙 협회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마을기업의 노력과 결실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내년 시행될 마을기업 육성법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마을기업의 가치와 사례가 도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확대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전북 마을기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 제2차 임시총회서

2026년 사업·예산 확정

전주농협이 2026년도 사업 추진의 밑그림을 확정하며 내년 경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농협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 117명과 임원 19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관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내년도 농협 사업의 방향성과 핵심 추진과제, 예산 편성 내용이 공유되며 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의결이 논의됐다.

전주농협은 2026년 사업계획에서 △조합원 복지 증진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농협 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구조 개선 등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인규 조합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기반으로 조합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을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나주·장성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획생산 워크숍 통해 공공급식 협력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공공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생산워크숍을 지난날 27~28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나주·장성 지역의 먹거리 선진 운영모델을 벤치마킹해 전북형 공공급식 체계의 고도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첫날 나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기획생산 운영 구조와 농가 조직화 방식, 공공급식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센터 간 거래 활성화 방안, 표준코드 도입을 통한 시군 적용 방향, 무주 친환경 사과 등의 급식 활용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나주시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공급 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선도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의 통해 개선,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온 경험은 전북 각 시군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둘째 날 전북 시군 관계자들은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학교급식, 아동급식, 임산부 푸러미 등 공공 먹거리 사업 전반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공공급식 공급구조, 기획생산 운영체계, 복지 프로그램 연계 방식 등



실무 중심의 운영 경험을 공유받으며 전북 지역의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실적인 참고 자료를 확보했다.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합지수 센터장은 “장성센터의 운영 사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군별 공공 먹거리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

K-공간정보 이끌 예비 전문가 탄생

LX 국토정보교육원이 운영하는 공간정보아카데미가 최근 ‘공간정보 응용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 최종 프로젝트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12회를 맞은 본 과정에는 취업 준비생 30명이 참여해 5개월간 공간정보 응용·복합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으며 실무 역량을 쌓았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육생들이 학습한 공간정보 프로그래밍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발표된 프로젝트들은 △인 가구 라이프케어 플랫폼 △해안가 위급 상황 감지 애플리케이션 △치매 노인 대상 안심 케어 서비스 △과학 교과 연계 현장학습 추천 서비스 △소아 의료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등 총 5개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신기술 접목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탐미어람’의 ‘치매 노인 안심 케어



서비스’는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치매 노인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이탈 시 즉각 알림을 제공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큰 호응을 받았다.

/오상근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 공공기관 B & 캐릭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탄소산업진흥원, 공공브랜드대상 ‘대상’

공공기관 B·캐릭터 부문 최우수 영예... 탄소산업 가치 확산 인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 공공기관 B & 캐릭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탄소산업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기관 브랜딩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최근 한국관광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공공브랜드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KAPB)이 주관하는 공공브랜드 전문 시상식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익성·공공성 제고에 기여한 브랜드를 선정한다. 올해는 20여 개 부문에 걸쳐 각 분야의 우수 브랜드가 발굴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의 지속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식 캐릭터 ‘카보니’를 개발해 대중 인지도를 크게 높여왔다. 기관은 탄소산업을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국민들에게 캐릭터를 통해 탄소소재 응용기술과 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기존 2D 캐릭터를 3D로 재구성해 입체감과 역동성을 강화하고, 탄소산업 현장을 누비는 카보니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탄소소재=어렵다’는 인식을 친근하게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장관상 석권

농진청, 벼 ‘알찬미’·검정콩 ‘청자5호’·복숭아 ‘엘로드림’ 선정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콩·복숭아 품종 3종이 ‘2025년 제2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상식은 최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성 품종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육종가의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종자 시상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국립종자원이 주관하며,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 등 총 8개 우수 품종이 선정됐다.

올해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 가운데 벼 ‘알찬미’, 콩 ‘청자5호’, 천도복숭아 ‘엘로드림’이 나란히 장관상을 받았다.

‘알찬미’는 이천시와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SPP)’ 방식으로 탄생한 품종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역 농업인과 미국종합처리장(RFC),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 병해에 강하고 키가 작아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음



며, 단백질(5.6%)과 아밀로스(18.6%) 함량이 낮아 윤기와 찰기가 우수하다.

‘청자5호’는 쓰러짐이 적고 꼬투리 탈립이 거의 없어 는 재배에 적합한 검정콩 품종이다.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건강 가능성이 뛰어나며, 검정콩 중 수확량이 가장 많다.

‘엘로드림’은 망고처럼 달콤한 풍미를 지닌 천도복숭아로, 신맛이 적고 껍질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기존 천도 품종이 7월 중순 집중 출하되는 것과 달리 7월 초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어 경쟁력이 크다.

/오상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